

人類共同善을 추구하는 로마 그레고리안大學

朴 東 玉
(聖心女大 社會學科)

1. 머리말

그레고리안大學은 永遠의 都市(città eterna)인 옛 로마의 中心街에 위치하고 있다. 그레고리안大學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이탈리아의 대학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약 12,000여개에 달하는 高等教育 기관에 약 6,200만 명의 학생들이 修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高等교육의 歷史的 발자취를 살펴 보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中北部 都市 볼로냐(Bologna)大學을 高等교육의 始發點으로 보고 있다. 볼로냐대학은 1158년 프리드릭 I세(Frederick Barbarossa I : 1123~1190)가 學生集團을 自治團體로 公認하므로 College란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볼로냐대학은 로마法에 관한 研究가 활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당시 구아르네리우스(Guarnerius 혹은 Irnerius 또는 Warnerius라 부르기도 한다 : 1055~1125)와 같은 學者도 있었으나, 볼로냐대학은 學生 中心의 대학으로 발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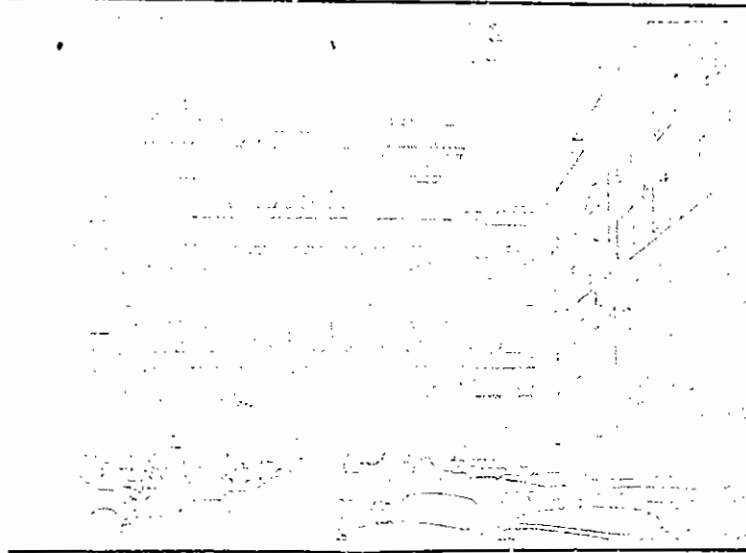
1224년에 프리드릭 II세(Frederick II : 1194~1250)의 인가로 南部 이탈리아의 살레르노(Salerno)에 醫學研究가 시작된 것 또한 이탈리아의 주목할 만한 高等教育의 背景이라 하겠다. 현대에 와서는 이탈리아의 北部 産業都市 토리

노(Torino)에 工大, Politecnico를 포함해 醫科大學이 알려져 있고, 文藝復興의 本產地인²⁾ 피렌체(Firenze)는 르네상스 研究와 文學, 그리고 歐洲共同體大學으로 이름이 나 있다. 밀라노(Milano)의 보코니(Bocconi)대학은 經濟·經營 專門大學으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엘리트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곳에는 또한 聖心大學(Università di Sacro Cuore)이 있다. 피사탑이 있는 피사(Pisa)에는 高等師範(Scuola Normale di Pisa)이 敎育과 基礎科學 및 文學으로 알려져 있고, 로마에는 新聞放送學과 政治學으로 유명한 Luiss大學, 학생 수가 18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로마大學이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大學들은 지면상 國立과 私立을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이탈리아에서 이름 있는 대학들을 나열하였다. 한편, 이탈리아처럼 高等教育機關이 많은 나라도 지구상에 드물 것이라 생각된다. 이탈리아가 1860년까지 여러 王國으로 형성된 나라였기에 특수한 이탈리아의 大學들을 세밀하게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므로, 필자가 修學한 바티칸大學 Gregorian University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設立과 沿革

그레고리안대학은 내용상으로 엄밀하게 보면



◀ 그레고리안大學의 주요 教育理念은 가톨릭 教會의 이념에 충실한 教育을 행하며 教會의 지도자와 일반 학문 진흥에 힘을 학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탈리아의 國土內에 位置하기는 하지만, 로마 市內에 있는 바티칸國[Vatican City : 이탈리아 語로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 : 우리 말로 적역하면, 바티칸市國 : 人口 1,000 여명에 0.4 square km 의 안도라(Andorra), 모나코(Monaco),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보다 작은 나라]에 속하는 바티칸國立大學이라 하겠다. 이 대학은 1534년 예수회의 창설자인 쾨이냐시오 로올라(St. Ignatius de Loyola : 1491~1556)가 프랑스 파리에서 6명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회(Society of Jesus)란 수도회를 창시하며 1540년에 敎皇 바오로 Ⅲ세(Pope Paul Ⅲ : 1468~1549)로부터 정식 認可를 받고 本部를 로마로 옮기고 1551년에 로마대학(Collegium Romanum)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無料敎理人文敎育 기관으로 시작되었으나, 1553년 神學部와 哲學部가 設立된 다음 해인 1554년부터는 敎皇 바오로 Ⅳ세(Pope Paul Ⅳ : 1499~1565)에 의하여 學位 수여권을 부여받으므로, 그때부터 眞實公히 敎皇廳 大學校가 된 것이다.

그레고리안대학의 前身인 로마대학이 그레고리안大學으로 改名된 것은 敎皇 그레고리 ⅩⅢ세(Pope Gregorius ⅩⅢ : 1502~1585 : 敎皇 제위 기간 1572~1585)가 敎皇으로 選出된 해인 1572년 7월에 無料敎育으로 인하여 財政的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예수회 대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巨額의 財産을 기증하기로 약속하였기에 校名을 바꾸었다. 敎皇 그레고리 ⅩⅢ세의 재정적 지원으로 1583년 대학 건물의 신축을 시작하여 건축된 교사는 1873년 로마市가 이탈리아領으로 편입되어 대학 건물이 몰수되고 국립학교 건물로 사용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設立準備期의 건물은 Via Capitolia 14번지 까사 델리 아퀴라니(Casa degli Aquilani)였는데,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섯번의 移住를 거쳐 1930년 그레고리안대학 출신인 敎皇 비오 ⅩⅡ세(Pope Pius ⅩⅡ : 1857~1939)에 의하여 벨루타 광장(Piazza della Pilotta)에 신축되어 현재까지 위치하게 되었다.

벨루타 광장은 옛 로마市의 都心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후방 200m 지점에는 이탈리아 공화국 大統領宮인 Quirinale가 있고, 좌측으로 100m 떨어진 곳에는 愛川(Fontana di Trevi)이 있으며, 우측 하단 300m 거리에는 로마市의 명소인 베니스 광장과 빅토리오 엠마누엘 기념관(Monumento a Vittorio Emmanuele Ⅱ)이 있고, 전방 100m쯤에는 로마의 明洞이라 하는 Via del Corso 길이 있다. 올해로 437년이라는 歷史를 가진 大學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관해서는 이만 언급한다.

3. 教育理念과 特徵

1582년 敎皇 그레고리오 Ⅷ세는 로마대학(그레고리안大學의 前身)을 위해 새 교정을 제공하게 되어, 교황은 그 이후부터 대학의 保護者(protector)로서 남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大學의 이름을 그레고리안이라 불렀고, 1928년 이후부터는 그레고리안대학, 聖書大學, 東方大學 등 세 기관의 연합적 성격을 띤 콘소르시움(consortium)화 했으며, 이를 그레고리안大學의 콘소르시움이라 명명한다. 이들 세 기관은 각기 독립된 대표와 제정을 유지하지만, 공히 예수회에 의해 運營되며 그레고리안은 바티칸 소속의 10여개 대학 중 중앙 대학이 되게 된다.

그레고리안대학의 주요 教育理念은 전 세계로부터 사제, 신학생, 평신도 등을 선발하여 가톨릭 교회의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행하며 科學的研究 과정을 거쳐 교회의 지도자와 일반 학문의 진흥에 힘쓸 학자를 배출함을 主目的으로 한다.

그레고리안대학의 이사장은 바티칸敎育聖省의 추기경 장관이 맡게 되며 예수회 총장이 부이사장직을 수행한다. 교수진은 전 세계 85 국가에 산재한 예수회 조직을 통해 충원되며, 학생 역시 5대륙 백여개의 나라로부터 오게 된다. 따라서 그레고리안의 첫번째 特性은 國際性(internationality)이라 하겠다.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敎授言語를 들 수 있다. 基本 共用語(Lingua Franca)는 이탈리아어이지만, 다수의 세미나와 選擇科目은 대학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 영어, 불어, 독어, 서반아어가 이탈리아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論文의 성격에 따라 아랍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등으로 課題物이 제출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5개 국어 이상에 능통하며, 학생들 역시 평균 3~4개 국어로 책을 읽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따라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때는 반드시 어학 시험을 치르고 있다. 영어나 불어는 필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탈리아어는 해독이 가능해야 입학이 허용된다.

두번째 특성은 학부 중심이라기보다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위주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神學, 哲學, 文學 등의 기본 과정

을 마치고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이미 소지하고 있으며, 또한 적지않은 경우에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신학과 철학 및 사회과학 등의 선진 학문을 습득하기 위해 그레고리안으로 오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특이한 점은 그레고리안이 設立 당시부터 여러 세기 동안 神學生이나 司祭를 위한 교육에 전념하다가 1950년대부터 平信徒와 非가톨릭人, 女性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60년대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취지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즉, 현대 세계에 있어서 제반의 社會變動은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 위주로만 교회를 운영하는 데 그 한계를 느꼈다는 점이다. 또한 교회가 유럽 위주에서 제3세계의 여러 국가에도 그 영향력이 강하게 미침에 따라 世界敎會(global church)를 지향함에 있어 平信徒의 役割이 더욱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철학부, 사회과학부, 사회커뮤니케이션센터 등에는 많은 수의 평신도와 가톨릭 신자가 아닌 非宗教人들 그리고 女學生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가톨릭 교회가 단지 세상 속에 있는 교회(church in the world)가 아닌 세상의 교회(church of the world)가 되고자 하는 취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4. 大學의 機構

그레고리안대학은 총장 이하 부총장이 있으며 주요 기관으로는 제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理事會(Senatus Academicus)가 있는데, 이는 총장, 부총장, 學部長 및 研究所長 9명, 정교수 10명, 조교 2명, 기숙사 관장 2명, 학생 대표 9명으로 구성된다. 協議會(Consilium Universitatis)는 총장의 자문 기관이며 총장, 부총장, 9명의 학부장 및 소장으로 구성된다.

學部(Facultas)에는 학부장 이하 교수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되는 學部協議會(Consilium Facultatis)가 있어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교무처(Secretarius Generalis)는 학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중앙 도서관(Bibliotheca Generalis)에는 80만 권 이상의 장서가 소

장되어 있다. 또한 재무 및 회계처(Administratio Oeconomica)가 있고, 대학 출판부는 대학 교재와 학술 잡지 및 일반 출판물도 취급하고 있다. 현재 그레고리안의 학생 수는 약 3천 명이며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8:1이다.

학위과정은 3기로 나누어져 있다. 1기 학사과정(Baccalaureatus)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신학부와 연관된 학부의 경우, 철학사가 요구되며 철학부와 사회과학부의 경우에는 단과대학의 졸업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대개 2년에서 3년이 소요되며 기초적·제도적 이해를 주목적으로 한다. 졸업 시험은 종합 필기 시험이나 소논문으로 치워진다.

석사과정(Licentia Specializata)은 보통 4학기 2년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는 전문 분야 중에 하나를 택일하여 이수한다. 졸업에 필요한 사항은 수료한 학점 이외에 종합 필기 시험과 종합 구두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홍역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과정(Doctoratus)은 최소한 2년이 소요되는데 첫 해에는 박사 과정용 硏究 세미나를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기간은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전적으로 학위 논문 작성에 소요된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면 논문 방어는 물론이고 논문의 출판이 의무로 되어 있다.

5. 神學部(Facultas Theologiae)와 法學部(Facultas Iuris Canonici)

그레고리안大學을 대표하는 신학부는 철학부와 함께 설립초부터 존재해 왔다. 전공 분야는 聖書神學, 神學史, 基礎神學, 敎理神學, 倫理神學의 다섯 분야가 있다. 정교수만 31명이 있고 명예 교수도 16명이나 된다.

법학부는 교회법을 전공하는 곳으로 학사과정은 따로 없고 석사와 박사과정이 있는데, 박사과정은 一般敎會法 박사과정과 실무 위주인 法學專攻의 박사과정으로 이분되어 있다. 법학부의 모든 강의는 라틴어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6. 哲學部(Facultas Philosophiae)와 社會科學部(Facultas Scientiarum Socialium)

철학부는 1553년 설립 당시부터 존재해 왔으며 기독교적 전통, 영구한 철학적 유산 그리고 현대 과학의 자료에 기초한 과학 탐구와 개인적 반성을 통한 철학 연구의 개선과 국제적 분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에 공헌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석사과정의 교육 내용은 철학적 신대지이며 體系哲學, 哲學史, 基督敎의 哲學問題, 탐스硏究 등의 4개 전공 분야가 있다. 특히 1970년에 설립된 부속 탐시즘硏究所는 자체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유럽에서는 가장 명망 있는 공산권 연구소이다.

사회과학부는 195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대학에서의 교육, 社會事業의 증진, 사회학, 경제학, 교회의 사회 윤리 분야의 연구를 위한 科學的 포메이션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주목적은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국제적 분위기에서 학업을 이수한 뒤,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위한 제반 사업, 사회 사업, 과학의 증진 등에 진력하게 함이다. 전공 분야는 經濟學(經濟發展專攻), 社會學, 社會倫理의 3개 분야가 있다. 특히 1962년에 설치된 國際社會硏究센터는 경험 연구의 산실이며 과정 중의 학생들에게 현장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모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7. 기타 特徵的 學部 및 硏究所

宣敎學部(Facultas Missiologiae)는 1932년에 설립되었는데 제 2차 바티칸공의회가 강조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가 상존하는 현대 세계에서 유효 적절한 선교 사업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문화의 강제 이식보다는 文化化(enculturation)를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를 위해 선교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이 학부의 주목적이다. 전공 분야는 宣敎學, 比較宗敎學, 宣敎司牧神學의 세 분야가 있다.

靈性神學硏究所(Institutum Spiritualitatis)

는 1958년에 시작되었으며 신학부에서 분리되어 나온 分科로 과정은 신학과 대동소이하다. 학사 과정은 따로 있지 않고 석사와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心理學研究所(Institutum Psychologiae)는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영성 지도, 가족 문제 상담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주로 하고 신학생을 위한 人性形成, 宗教倫理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곳이다. 심리학 연구소는 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수진 대부분이 심리학 학위는 물론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 실습이 강조된다. 크리스찬心理學과 深層心理學이 전공 분야이며 박사과정에서는 이탈리아어와 영어는 물론 불어와 독어의 독해가 필수적이다.

宗敎學研究所(Institutum Scientiarum Religiosarum)는 1971년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평신도를 위한 신학 과정이며 4년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제출하면 석사학위(Magisterium)를 취득하게 된다. 전공 분야는 基礎神學, 聖書研究, 司牧神學, 敎理 등이다. 유럽에서는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종교를 강의할 수 있으며 신학부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多科學社會커뮤니케이션센터(Centrum Interdisciplinare de Communicatione Sociali)는 1981년에 설치되었는데 대중 전달이 복음 전파와 신학·철학적 언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문화와 대중 전달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며, 이를 위해 司牧의 대중 전달을 위한 모델과 제반 가능성에 대해 多科學的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동 센터는 미래의 철학·신학 교수, 대중 전달에 증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며 記號學的 접근, 社會·文化的 접근, 哲學·神學的 접근, 敎會大衆傳達練習을 위한 접근 등의 네 가지 전문 분야가 있다. 과정은 2년이며 종합 시험과 논문 제출 후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그밖에 그레고리안대학에는 라틴어와 라틴문학을 위한 학교가 개설되고 있으며 영어,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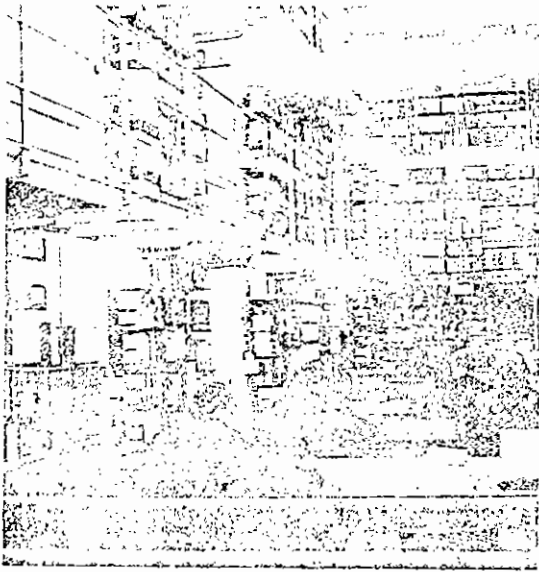
8. 그레고리안大學의 貢獻

그레고리안대학이 사회에 기여한 사실을 필설로 나열하기에는 지면상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간략한 통계만을 소개한다. 그레고리안은 그동안 48명의 가톨릭 聖人을 배출하였고, 1552년부터 16명의 敎皇(교황 전체의 44%)이 그레고리안 출신이며, 현재 전체 추기경의 1/3, 그리고 전체 주교의 1/5이 이 대학에서 修學한 바 있다.

한 예로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 1552~1610)를 들고자 한다. 그는 1552년 이태리 마체라타에서 태어났으며 1571년에 예수회에 들어가게 된다. 그후 1572년부터 1577년까지 5년간 초창기의 그레고리안에서 人文科學, 哲學, 神學 그리고 數學, 物理學, 天文學 등을 修學하였다. 당시의 그레고리안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동시에 접목시키던 유럽에서는 몇 안 되는 선진 학문의 주도적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공부를 마친 후 리스본을 거쳐 1582년 마카오에 이르게 된다. 1601년에는 북경으로 이주하여 황제를 알현하고 1610년 북경에서 사망한다. 宣敎者로서 마테오 리치는 中國人의 文化와 傳統을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어는 물론 중국의 전통 예절을 익혔으며 聖書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改作하여 소개하였다. 그중의 한 작품이 광해군 때 실학자 이수부의 「지봉유설」을 통해 조선에도 소개된 바 있던 「天主實義」였다. 이러한 문화와 언어의 국경을 초월하려는 노력이 현재의 그레고리안에도 그대로 실행되고 있어서 4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전혀 퇴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地球村의 한 실험장과도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그레고리안 출신은 수십 명을 헤아리고 있다. 사제로는 광주대교구장인 윤공희 대주교, 주교회의 의장이며 수원교구장인 김남수 주교, 현재 서강대 총장인 박홍 신부, 가톨릭대의 함세웅 신부와[1]박재만 신부, 효성여대의 구본식 신부 등이 있고, 학계에서는 인하대의 임명방 교수, 한국외국어대의 한홍순 교수, 서강대의 임진창 교수 등이 있다.

앞서 교육 이념과 특징에서 밝힌 바와 같이



▲ 로마 그레고리안大學의 도서관

그레고리안은 전 세계로부터 모여든 우수한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며 정의에 입각한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기독교 내의 여러 교파와의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와의 대화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불가지론자, 무신론자와의 대화를 위해 탐스研究所에서는 공산권 국가와의 교섭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 변동의 흐름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후기 산업 사회의 공통적 문제인 도덕·윤리·가치관의 타락을 주목하고 다국적 기업, 세계 은행, 국제 기관 등에 대한 연구와 대화를 통해 기술이 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신앙적 측면에서 많은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구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여러 차례 윤리적 조언을 요청받은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등록금만

으로 해결될 수 없어 미국의 뉴욕市에는 그레고리안後援會(The Gregorian University Foundation, 106 West 56th St. New York, NY 10019)가 설립되어 있는 등 여러 나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재정적 도움을 얻고 있다. 특히 3천 명이 안 되는 학생이 사용하는 백만 권에 가까운 중앙 도서관의 장서는 분명 그레고리안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이다. 또한 도서관의 전산화 계획은 현재 그 실현 단계에 있다.

9. 맺음말

이상에서 그레고리안大學의 특성과 教育環境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 보았다. 聖이냐시오 로욜라가 처음 그레고리안을 창설했을 때의 기본 취지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었다. 즉, 미래는 오늘의 젊은 세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밝혀진 자명한 진리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 교회가 그레고리안에 거는 기대 또한 자못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도처에서 물려든 젊은이들이 국제적인 분위기에서 수업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민족적·언어적·문화적 장벽과 편견을 넘게 되며 결국 인류가 하나라는 결론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러한 정신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共同善을 위해 평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 國際聯合의 大學(University of the Nations)이라는 그레고리안의 별명은 이러한 연유에서 매우 타당하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로마의 그레고리안은正義와 平和의 普遍的 眞理하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연구와 수업에 정진하고 있다. 끝으로 이 작은 글을 위해 최근 그레고리안대학교 社會科學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金始弘 박사가 최근의 資料를 제공해 준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